

사 설

대학 비판문화 없애려는가

이제 사회과학은 금기의 학문이 돼버렸다. 지난 달 29일 경찰은 고려대 앞 '장백', 연세대 앞 '오늘의 책' 등 서울 시내 4개 사회과학서점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2백여권의 사회과학서적을 압수하였다. 또한 각 서점 대표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연행하였다.

경찰청 보안과 형사들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경 성대 앞 '논쟁서점'에서 '공산당 선언' 외 28종 50여권의 서적과 서점운영에 필요한 거래장부 및 매출장부를 압수하였고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경찰의 사회과학서점 수색은 지난 4월 15일 서울대 앞 '그날이 오면' 등 3곳을 조사해 서점주인 3명을 연행한 것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수색이었다. 당시 대학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또다시 이해하기 힘든 법집행을 한 것이다.

압수당한 서적들은 '북한 현대사', '자본론 I, II, III'과 '경제 원론', '철학의 기초이론' 등인데 이미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을 법한 책들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경찰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안정을 틈타 이적표현물이 문제시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색을 하게되었다 한다. 그렇다면 이미 그 서적을 읽은 많은 대학생과 교수들도 연행해야되지않는가.

이번 경찰의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다원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의 지적풍토를 파괴하는 처사임에 틀림없다. 또한 90년대 들어 대학가의 화두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대학인의 정치무관심, 비판의식 결여에 일조를 하는 움직임이다. 경찰은 자기 자신만의 출세를 원하고 물질만능주의에 쫓겨 대학인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는 95년부터 각 대학 사회과학서적이 재정난에 차려로 문을 닫을때 대학인의 지성과 비판의식 결여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대학 총학생회가 사회과학서점 살리기 운동을 벌여나가면서 그 명맥을 이으려했으나 이번엔 그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안그래도 학생운동의 나이가 할 길을 고민하고 건전한 대학문화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이번 경찰의 처사는 아마도 이러한 움직임을 말살하고 산업사회 이전의 경찰국가를 이룩하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종되고 있는 대학의 건전한 비판문화 정착,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연행된 서점대표는 석방되어야 하고 압수출판물은 즉각 반환되어야 한다.

학술토론회 - 박정희 시대 재평가와 오늘의 한국사회

그들만의 일그러진 영웅 만들기

경제적 성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지적



▲지난 25일 서강대에서 박정희신드롬에 대한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미 18년 전에 세상을 떠난 박정희의 영혼이 최근 우리사회에 다시 부활하는 듯 하다. 이제 광적인 우상숭배적 현상은 어느정도 사그라진 듯 하지만, 경제적 공황상태와 정치적 혼란상황과 맞물려 많은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의 초석만큼은 확실하게 닦았다는 식의 평가때문인지 이런 '박정희 신드롬'이 오늘날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듯 하다. 그러나 '박정희 신드롬'이 박정희에 대한 무지나 정부에 대한 맹목적인 반발로, 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월 25일 서강대에서 개최된 학술토론회에서도 '박정희 신드롬'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가해졌다. '박정희시대 재평가와 오늘의 한국사회'라는 주제로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박정희시대의 경제성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혹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토론회는 1, 2부에 나뉘어 열렸으며 1부는 '근대화와 개발독재 - 박정희시대 재평가'란 주제로, 2부에선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박정희시

대의 적용의 두가지 방향에서 박정희 부활문제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동아시아성장론 관련해 한국 자유주의는 서구의 그것과 다르며, 오히려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축적방식에 있어서 박정희 신드롬의 수혜자이며 나아가 창조자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문어발식 기업확장 및 이의 악순환인 정경유착이 근절되어야 하며, 노동대중이 경제적, 정치적 주체로 자리잡아야만 신자유주의와 박정희 신드롬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박정희적 발전방식 자체와 현재 한국사회

에서 적용의 두가지 방향에서 박정희 부활문제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동아시아성장론 관련해 한국 경제의 발전을 언급할 때 제시되는 박정희식 발전국가론은 근대화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킬 뿐 발전과정 상에서의 사회집단 및 계층간의 갈등,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 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대중의 동원화, 통합화 방식이 오늘날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대안적인 동원화와 통합화방식을 찾지 못한 현시기의 특권세력의 내적 허약성과 불안정성의 반영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정희정권하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그 역사적 유산'이란 논

문에서 정상호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은 박정희시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민주주의를 희생시킨 결과라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민주화보다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로 민주주의의 내재적 기반을 축소시키고, 유신체제로 인한 민주주의의 최소 원리 훼손, 더욱이 그가 남긴 가부장적 재벌체제, 지역주의, 비대한 정보기관, 천문학적 액수의 선거자금과 비자금 등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잔존되는 점등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부 종합토론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구 동국대교수는 '박정희 재평가: 이성의 파괴와 우상의 신봉'이란 글에서 박정희 재평가는 이성의 파괴이고 우상의 신봉이라는 세기말적 증후군처럼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며, 박정희에 대한 총체적이고 계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박정희의 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권력부리정당성, 권력창출 정당성, 권력행사정당성의 세 영역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보니, 앞의 두 영역에선 도저히 점수를 줄 수가 없고, 권력행사의 정당성 중 경제성장과 민족통일 복원에 후한 점수를 준다고 했다.

100점 만점에 11점 이상의 점수를 줄 수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즉, 경제개발에서의 미세한 성과만으로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것은 근거가 불명확한 신드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가한 서중석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가 박정희 정권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 그 시기 사회학자나 운동권조차 단편적 지식만을 알고 있었다며 일종의 우상 숭배식으로 배운 지식, 비화된 지식만이 판을 칠 뿐 체계화된 연구를 통한 지식이 없었다며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홍콩같은 경우엔 개발독재를 안하고도 경제발전을 했으며 오늘날의 경제성장이 과연 박정희 때문인지, 박정희는 과거정권을 안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신드롬적 현상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TV에서 제3공화국이란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한다면 박정희에 대한 환상은 금세 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중국은 대선을 앞두고 혼탁한 세력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역사의 주인은 어떤 한 인물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역사적 평가는 우리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시사부)

PC 월드컵 대표팀 유니폼은 우리 브랜드로

통신원

"주가 사상 최대 폭락" "취업대란" 등의 경제한파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썩어붙어 있다. 하지만 월드컵열풍으로 인해 잠시나마 우리들의 시름을 잊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다.

하지만 유명한 인사에게 유명세가 따르듯이 하이텔 PC통신상에서는 월드컵대표팀의 유니폼이 외국브랜드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자본의 논리이니 당연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월드컵 대표팀이 나이키를 택한 것은 우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우리브랜드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sunbow) 라피도가 축구국가 대표의 스폰서를 맡을때는 연간 3억을 지원했는데 나이키는 연간31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나이키와의 계약덕분에 브라질과 친선경기도 가능했던 것이다.(CR301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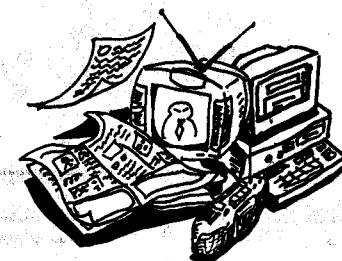
하지만 초국가 스포츠 업체들과 경쟁하기엔 아직 우리의 경쟁력이 약하기에 각자 자발적으로 국산품을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hanbo467)

한편 2002년 월드컵을 최대한 이용하는 이야기도 있다. 일례로 코카콜라의 경우 일개군소기업에서 오늘날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올림픽스폰서를 맡으면서 부터라고 한다. 월드컵도 올림픽과 버금가는 대회이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스포츠업체는 과감한 마케팅분야 투자로 한국상품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xeni5700)

지금의 시대는 이미지의 시대이고 마케팅의 시대라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디자인 의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와 이미지를 입는다. 월드컵과 같은 국제적 행사에서 당당히 국내 브랜드 운동복을 입고 뛰는 것이 당당한 지원금 보단 장기적인 안목의 대투자가 할 수 있다. (최현일 기자)

세·시·봉

한 우물에 담긴 오류



최수정 편집장

고등학교 때 항상 마음 한켠에 두고 경쟁 상대로 삼은 친구가 있었다. 큰키에 이치적인 용모를 하고 있던 그 친구는 무슨과목이든 항상 나보다 조금씩 앞섰다. 많이도 아니고 정말 조금씩이었다. 내가 미술실기시간에 B플러스를 받았으면 그친구는 항상 A플러스를 받았고 내가 A받았다고 좋아라 하면 A플러스의 점수를 받곤 했다.

이따금 쯤인가? 음악실기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복이랑 장고 시험을 보는데 먼저 시험을 본 그 친구가 2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선생님이 아무개 18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번만은 19점을 받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나의 차례. 난 정말 최선을 다해 두들겼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온 점수는 안타깝게도 17점. 선생님은 나에게 "소리는 좋는데 박자가 너무 빠르다."고 하셨다. 그 순간 사지에서 힘이 빠져 나갔다. 나는 그 친구와의 경쟁심이 아니라 나의 끈질긴 집착때문에 지쳐버렸다.

그리고 3년이 흘러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의 학생'이 된 그 친구에게서 한번 보자는 연락이 왔다. 묘한 기대와 흥분이 들었다. 어떻게 변했을까? 고등학교

교 때일을 생각하면 다시 만나서 뭐하냐 싶기도 했지만 나의 대학 생활에 자신있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보자"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만난 그 친구는 너무나 평범한 대학생에 불과했다. 내가 그친구보다 더 열심히 산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가는 길이 어설프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한일전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갑자기 그 친구 생각이 났다. 88올림픽이후 최대의 경비태세를 갖추었다는 얘기가 웅원 연습에 정선없는 붉은 악마들의 모습과 반드시 이기고 싶고 이기고 말겠다는 차갑독의 다부진 다짐을 보면서 이 전 국민적 집착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2002년 월드컵이 두나라에서 같이 열리는 마당에 나란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것도 괜찮은 모습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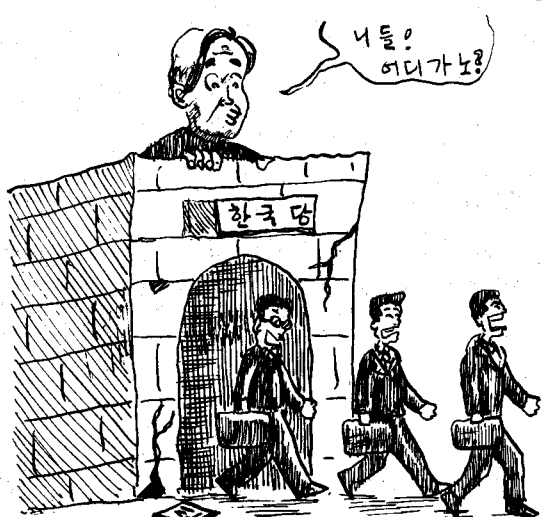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만약 그 친구에 대한 패해의식이 아니라 좋아하는 과목부터 열심히 했다면 그 친구보다 훨씬 공부를 잘했을지도 모른다.

황폐한 승부만 남긴 경쟁은 결국 어디로 갈까? 이 지긋지긋한 승패 게임을 떠나 함께 갈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들려오는 우리에선 불법나포는?

경희만평

김진우



"외로운 성(?)생활"

푸른 미래와의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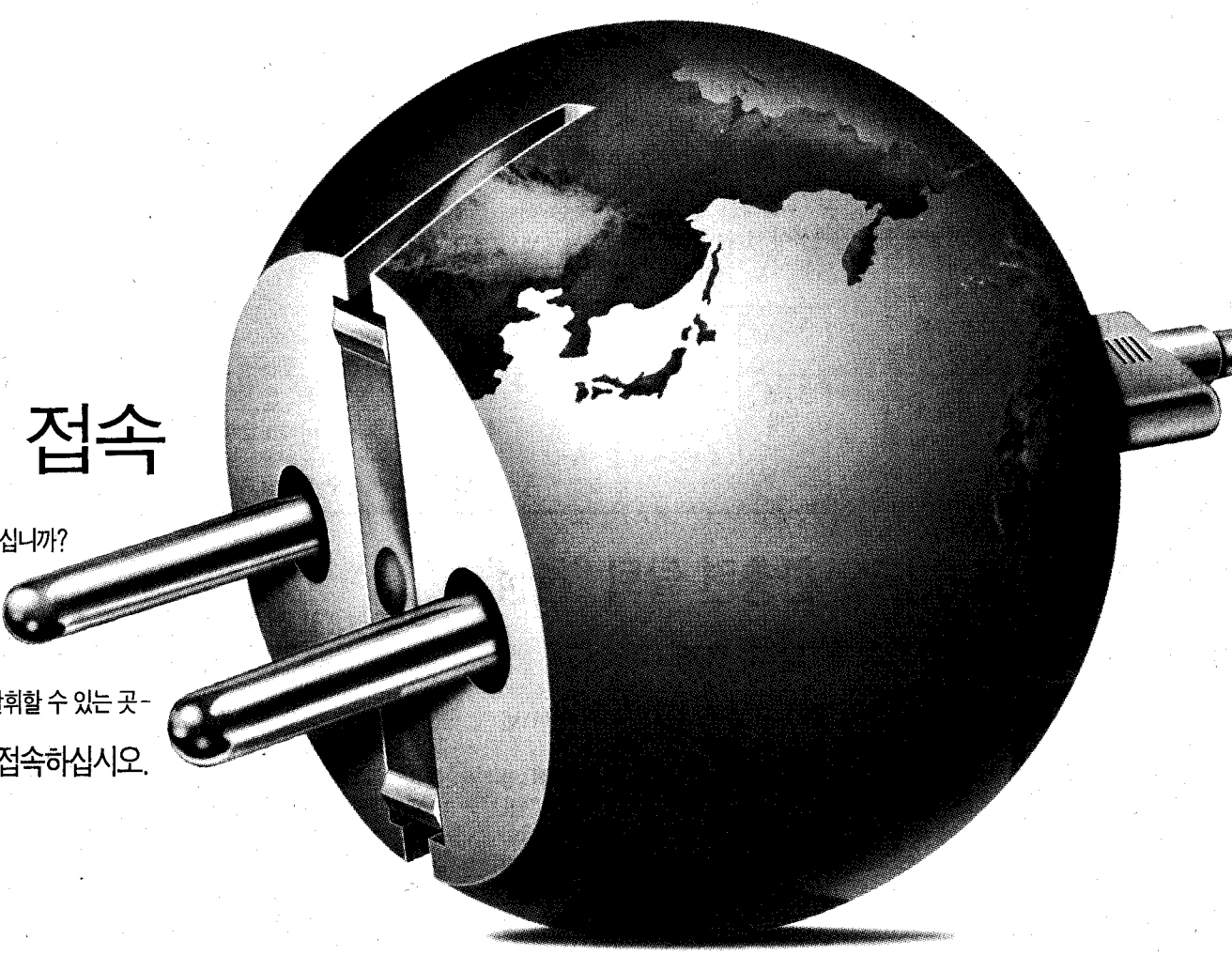
푸른 기술하늘처럼 푸른 미래를 꿈꾸십니까?

푸른 젊음을 함께 할 푸른 일터를 찾으십니까?

종합건설, 유통·물류, 방송·영상, 정보통신,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청구그룹에서 푸른 미래와 접속하십시오.



'97 하반기 청구그룹 신입사원 모집(건설부문)

1.모집내용

모집회사	모집부문	전 공	인 원	응시자격
(주)청 구	이공계열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98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주)청 구 주 택	인문계열	경영, 경제, 회계, 법, 행정	○○명	-학사: 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학사: 6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남자는 병역을 종결했거나 면제된 자
●해외여행에 갈취사유가 없는 자
●기술직 관련 자격소지자 우대
●외국어 성적 우수자 우대

2.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적성검사 및 면접 3차: 신체검사

3.제출서류

●입사지원서(당름 소정양식) ●최종학교 전학내 성적증명서(석사는 대학성적 포함)
●자격면허증 및 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사본(소지자에 한함)

4.원서교부 및 접수

지 역	교부 및 접수처	전화번호
서 울	(135-0811)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62-7 청구빌딩 (리미티드비즈니스스퀘어에서 경복야파트먼트)	(02)02-3420-1009 (02)02-566-4945~6
대 구	(706-010) 대구 수성구 범어동 223-5 (주)청구 (경남타운 사거리)	(053)063-760-1009 (053)063-760-1123

5.접수기간 및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97년 11월 10일(월)~11월 21일(금) 09:30~17:30 (단,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은 제외)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기타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우원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청구그룹인력관리위원회